

<2021년 1월 24일 주일말씀>

간절한 기도로 인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본 문 에스더 4장 15-17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출애굽기 14장 21-24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열왕기상 18장 36-40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핏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말씀 시작>

- 1. 성경은 누가 처음 가르치느냐가 중요하다. <성경>은 하나의 ‘세계사’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얽혀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다.**
- 2.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성경 속 일어난 일을 통해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함을 알아라.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때마다 일어나고 있으니, 그때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성경은 이를 가르쳐주는 세계 최고의 책, 인류 최고의 책이다.**

3. 집중하는 만큼 에너지가 나온다.

4.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데도 상대적으로 억울함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데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까?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 첫째, 모르고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 둘째,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시기질투 하는 자 때문에
- 셋째,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을 이루려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많다.

5.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겪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니,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시고, 각종 고통과 억울함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셨다.

6. 기도하면 100% 잘 되고 형통한다.

<첫 번째 사연, 에스더 이야기>

7. 첫 번째 사연, 에스더가 기도함으로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한 사연이다. 하만의 음모로 인해 자기 민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한 것을 듣고, 에스더는 먼저 유다 민족과 함께 3일을 금식 하고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가 고함으로 민족을 구했다.

에스더도 모르드개도 그냥 움직이지 않고, 먼저는 <기도>했다. 큰 일 일수록 먼저는 민족이 합심해서 기도했고, 기도한 후 나아

갔다. 그리고 기도하니 억울하게 죽을 환경에서 살아났다.

8. 이와 같이 섭리사도 그동안 시대 하만과 같은 악평자들로 인해 수많은 고통과 억울함과 비난 받는 일에 처했지만, 그때마다 기도했다. 21일 기도, 40일 기도, 70일 기도, 100일 기도, 에스더 기도, 엘리야 기도, 성령집회를 통한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9. 말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억울함과, 수많은 그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섭리사가 존재하며 복음의 역사를 맞은 것이다.

10. 기도의 힘으로 할 것이 있다.

11. 우리는 우리의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 너무나 많고, 이때마다 기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에스더 사건을 통해 이것을 늘 기억하고 늘 기도하기다.

12. 섭리에 태어났으면 섭리가 ‘내 것’ 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내 역사’ 이고, ‘내 주님’ 이고, ‘내 하나님’ 이다. <내 것>이 되어야 한다.

13. 악평자들이 더 못하게 하고, 그 소리를 멈추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 달라고, 행한 대로 갚아 달라고 기도하기

다.

14. 역사는 ‘내 것’ 이 되어야 한다. 남의 역사가 아니라 ‘내 역사’ 이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선택해서 섭리에 태어났다. (섭리사가) ‘내 것’ 이 되어야 한다.
15. 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서 자라야 할 섭리역사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살아야 할 섭리역사이다. 떳떳하게 살아갈 역사이다.
16. 다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이 세상을 구하겠다고 <결심한 자들>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17. 내가 살아가야 될 섭리역사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생명을 지키듯, ‘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겠다’ 는 심정을 가져야 섭리역사가 내 것이 된다. 그래야 아끼게 되는 것이다.
18. 자기 것으로 여겨야 귀히 여긴다.
19. 기도의 느낌, 기도의 맛, 성령 받는 맛, 본인이 성령 받고 시인하는 느낌을 본인이 알아야 역사를 등지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이 없지는 않으나 어려움을 이기게 된다.
20. 기도하면 아하수어로 왕이 왕비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었듯, 하나님은 시대 신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대 보낸 자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억울하게 한 자들을 하만 같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에스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고, 왕비 된 심정으로, 하늘 신부로서 하늘 앞에 나아가기다.

<두 번째 사연, 모세 이야기>

21. 모세 때의 이야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다. 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고, 노동착취를 하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하나님은 이들의 때를 기다렸다가 때를 따라 모세를 미리 이집트의 바로 왕의 집에 보내어 왕궁에서 키우셨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다. 그러나 그냥은 안 보내주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게 해 주셨다.

22. 이와 같이 우리도 때가 되어서 애굽 같은 구시대를 벗어나야 한다. ‘기성’을 벗어날 수도 있고, ‘옛 사고’를 벗어나야 할 수도 있고, ‘2세에만 묶여 있는 사고’를 딱 버려야 할 수도 있다.

23. 새롭게 시작할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홍해바다와 같은 개인의 성향, 가정사, 친구들, 지나친 우정, 악평, 기성에서의 사고와 같은 것들이 막고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이스

라엘 민족의 뒤를 쫓는 애굽의 마병대와 같은 것들도 있다.

24. 누구든지 새 역사로 넘어와야 한다. 몸이 왔다고만 해서 온 것이 아니다. 마음, 정신, 생각이 같이 와야 한다. <깨닫고 와야> 진짜 새 역사로 넘어 온 것이다.
25. 지금 애굽을 나왔느냐? 몸만 나왔다고 다가 아니다. 새 역사로 완전히 넘어와야 한다.
26. “내 섭리역사”가 된 순간부터가 <깨달음의 시작>이다. 그 전에는 깨달음도 적고, 하나님도 잘 안 느껴지고, 주님도 안 느껴지고, 성령도 안 느껴진다. 그 때는 역사할 수 없다.
27.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과학처럼, 학식처럼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시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믿음>으로 넘어와야 한다.
28. 항상 옛 것을 벗어나서 새 역사로 오려면 앞에 홍해바다처럼 막는 것이 있고, 뒤에 마병대와 같이 쫓는 것이 있다. 이때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앞에 막힌 홍해바다를 가르고, 뒤에서 쫓는 마병대를 물리쳐야 한다.
29.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응답이 오면 머리가 맑아지고, 걱정되던 일이 갑자기 걱정이 안 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에 그러하다.

30. 기도하면 어떤 일은 바로 해결되는 것이 있고,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일이 있고, 어떤 일은 ‘내가 행해야’ 해결되는 일이 있다. 다 다르다.

<세 번째 사연,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31. 엘리야 선지자 때의 일이다. 고대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자인 아내 이세벨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각종으로 박해했고, 이스라엘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세워 당시 이스라엘에 우상 종교가 꽃을 피우게 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산 속으로 들어가서 3년 6개월을 처절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갈멜산에서 아합 왕의 거짓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1명으로 전면승부를 하여 하나님을 증거 했고,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켰다.

32. 이와 같이, 이 시대 우리는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함으로 행해서 주를 지키고 섭리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고 하면 된다.

<네 번째 사연, 다니엘 이야기>

33. 바벨론의 다리오 왕 때 포로로 잡혀 간 다니엘은 아주 충성으로 왕을 위해 일 했지만, 하루 3번 하나님께 민족을 위해서, 하나

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다. 그러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신하들이 다니엘을 음모하여 왕 외에는 무엇에도 구하면 안 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다니엘을 그것을 보고 타협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 했다. 그러니 음모에 걸려서 사자 굴에 던졌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주셔서 살리셨고, 이를 본 다리오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보내서 다니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심을 말하게 했다.

34.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와 같이 해결해 주신다.

35. <기도>는 ‘올리는 일’이다. 기도하여 가장 완벽하고 공의로운 심판자에게 고하여라.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

36.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설교 하는 자가 설교를 잘 하는 자이다.

37. 이와 같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 시대 말씀을 절대시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도하기다. 그리함으로 사자와 같은 악평자들에게 먹히지 않고 그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 하자.

38. 역사는 대단한 일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

랑하고 진실로 믿는 것으로부터 대단한 역사가 시작된다.

- 39. 돌 조각을 하려면, 돌에 정을 대어 쇠파치로 때리는 작업을 여러 번 해야 한다. 기도는 일이다. 기도는 마치 정에 대고 쇠파치를 두드리는 것과 같아서, 계속 할수록 일이 해결 된다.
- 40. 엘리야 같이, 다니엘 같이, 모세 같이, 에스더 같이 기도하기다.
- 41. 기도는 일이다.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섭리역사이다. 하나님의 뜻을 휴거로 이루었다. 하늘의 신부로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과 함께 늘 이기고 승리한다.
- 42.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정말 기도할 때다. 진실한 기도, 깊은 기도를 할 때다.
- 43. <깊은 기도>는 ‘집중하는 것’이다. 깊이 하는 것은 집중하는 것이다.
- 44. 실력은 ‘정신일도’에서 나온다. 운동선수들도 공 하나 보고 정신일도 한다.
- 45. 깊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신일도’ 한다는 것이다. 정신일도 해서 썸박하게 끝내는 것이다. 공부 할 때 집중하듯이, 기도 할 때 하나님만 생각해서 집중하기다.

46. 기도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 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다. 이것이 중요하다.
47. 어떻게 진실한 기도도 안 해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시대 말씀을 듣겠느냐. 기도를 깊이 했으면 느낀다.
48. 섭리를 나간 자들은 진짜 기도 했으면 못 나간다.
49. 내 인생은 내가 책임 질 수 없다. 내 판단이 다 옳지 않고, 사
람들의 판단이 다 옳지 않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면 나오도록 기도해야 한다.
50. 하나님은 영이시다. 육신과 영은 바로 통할 수 없지만, 육신을
가진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통하는 통로가 있으
니, 바로 <기도>다. 기도하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다.
51. 기도하면 역사가 부인되지 않는다.
52.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붙들어 주신다. 하
나님께 사로잡힌바 되어서 이것을 그냥 두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53. 어느 사람이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휴거
되어 살아야 한다.

54.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
55. 기도해야 본인이 시인하고 따르게 된다.
56. 기도해야 하나님, 성령님, 성자 생각이 들어간다.
57. 기도해야 제대로 보이고 들리고 판단된다.
58. 기도해야 제대로 굳건해지고 담대해진다.
59. 기도해야 사탄의 꾀를 받지 않고, 사탄과 악평자를 이긴다.
60. 기도해야 죽음의 운명이 생명의 길로 뒤바뀐다.
61. 기도했는데 안 되면, 내 책임분담을 다 했으니 하나님께 맡겨라. 해 볼 수 있는 것 다 해 봤는데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62.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 깨닫고, 섭리도 깨닫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될 때다.

<기도가 상달되는 방법>

63. 기도가 상달되려면 첫째, 하나님 앞에는 깨끗하게 나아가야 한다. 돌이키기, 회개하기다. 그릇된 생각을 돌이키고, 꺼리는 것을 다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죄 없는 상태에

서 의인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힘이 강력해진다.

64. 둘째, 하나님께 안 통하는 것이 있으니, ‘가식과 거짓’이다. 회개도 솔직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가식을 제일 싫어하신다. 오직 진실만 통한다.

65. 셋째, 기도만 하고 입만 움직이는 것 안 좋아하신다. 또한 말만 하고 행실은 하지 않는 것도 싫어하신다. 행실이 같이 따라야 한다. 힘들더라도 말씀을 하나씩이라도 행하며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66. 넷째, 기도를 잠깐만 하면 효과가 없다. 범사에, 매일, 수시로 기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7. 성령님은 선생에게 “고생돼도 생명길로 가라.” 말씀하셨다. 기도 할 때 조금 고생되고 집중도 해야 한다. 그러나 고생되더라도 ‘기도함으로’ 영 혼 육이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해야 한다.

68. 지난 20일 수요일부터 섭리사 21일 기도가 시작되었다. 선생님은 기도하시니 기도할 것이 많은 것을 깨달으셨다.

69. 지금은 섭리인이라면 부서, 국적,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진짜 간절히 기도할 때다.

70. 다 같이 기도하면 기도의 위력이 크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마음에 강하게 박히면서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71. 항상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72. 기도 21일이 어려우면 3일, 7일씩 쪼개서 해라. 이렇게 해서 21일을 채워나가면 쉽다.
73. 선생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다. 큰 문제들일수록 머리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74. 기도함으로 하나님 성령님 주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충만한지 깨닫고, 각종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고, 각종 원하는 것도 이루고 승리하기다.
75. 집중과 진실한 기도다.
76. 간절한 기도로 인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